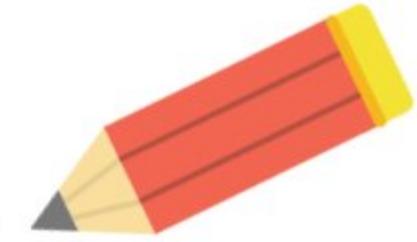




눈송이의 숙대 정복  
행정학과 학생회 부서&학회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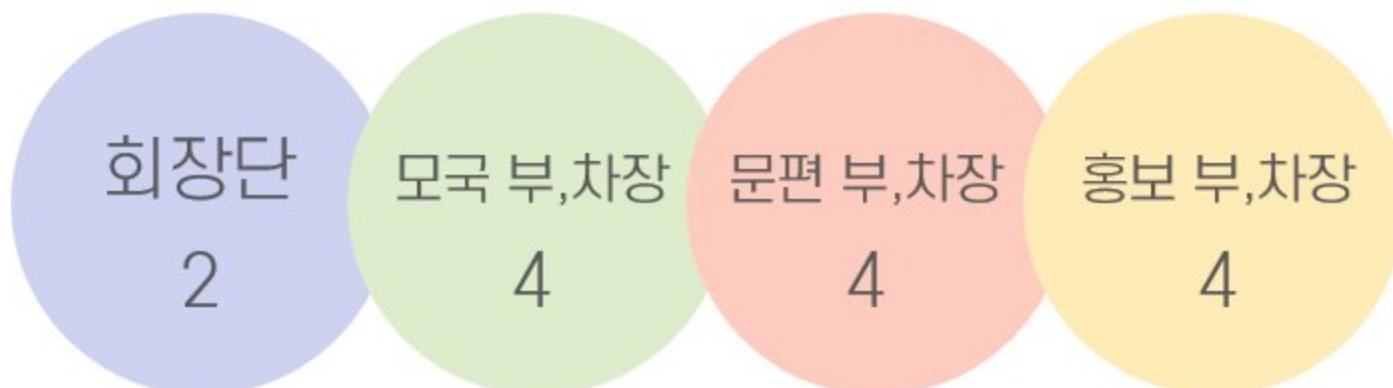


# 행정학과 학생회 구성



**행정학과 학생회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모의국무회의, 문화편집부, 홍보부 세 부서의  
부장단, 차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두 명씩이며,  
3월 개강 후 부서별로 부원 모집이 끝나고  
부원 중에서 차장을 선발하게 됩니다.**



# 모의국무회의



모의국무회의 부서는 모국 부원들이 정부의 각료가 되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의 연극인 '청파민국 모의국무회의'를 구성합니다. 9월에 열리는 모의국무회의를 위해 모국 부원들은 한 학기 동안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시사 문제 토론을 통한 지적 성장, 우리가 만드는 무대. 모의국무회의 와 함께해요!

# 문화편집부



문화편집부와 함께  
행정학과의 추억을 기록해봐요!

문화편집부는 행정학과의 1년간의  
기록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행정학과 행사가 있는 날이면  
학우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문편의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 밖에도, 영상, 모국지, 모임터지,  
레터지 등을 제작하며 행정학과의  
일기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홍보부

〈모의국무회의 주제 투표 결과〉

지난 간식 배부 때 진행되었던  
모의국무회의 주제 투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소년법 개정 9표(75%),  
검경 수사권 조정 29표(24.1%),  
기권 1표(0.9%)로 '소년법 개정'이  
올해 모국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의국무회의 준비위원회-

홍보부는 행정학과의 행사를 홍보하고  
학과의 소식을 전달 합니다.  
홍보부는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행정 학우들과  
소통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행정인의 밤이나 모의국무회의 등의  
행사가 있을 때, 학우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포스터의 도안을 제작합니다.

홍보부와 함께 행정학과의  
하루하루를 그려나가요!

'숙명의 민주주의'의 역사와 숙명인이 만든다.  
~ 숙명의 충장인을 배울 수 있는 힘은 오직 숙명인들에게만 존재한다 ~

여기에 민주주의가 실현될 역사와 행정학과 세 21대 학생회 '늘봄인'은 국민으로 환영해주시길 기다린다. '학생참여 충장인선'은 육성·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학교의 충장인 선정 시기와 함께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행정 충장선사는 임의 규정을 근거로 진행하는 교수들의 반대파리 선거뿐이며, 선거로 공정성 문제가 있다.둘째, 학교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의견이 들어 반영되지 않는다. 현행 충장인선제에서도 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주인순위가 되는 이유로 교수들이 일부 운영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지정되고 있다. 충장은 자리를 흔들어 혹은 다른지도 자리를 흔들어 사람을 대신해 '잘 보내면' 되는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같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교수들이 원하는 경계를 이용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셋째, 구상원들의 부족을 이끌어 유통되거나 결론을 수립할 수 있다. 즉, 이 시스템은 선제하는 1인은 후보 간 목표물의 차이가 커더라도 유통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는 충장인선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분명하게 충장인선제가 필요함을 알았다. 학생들의 권리와 보장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민주주의로 전진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충장인과 '오늘'을 비롯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다. 충장인선제 실현기 부스 운영, 학생 참여의 2인 시위, 충장인선제 평화를 위한 대회로 개최, 학우회 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장을 했다. 그러나, 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구구하지 않고 있다.

5월 29일, 늘봄인에서 진행되는 전체학생총회에 충장인선제 개선을 위한 대회로 개최된다. 전체학생총회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전부의 경각심을 갖고 충장인선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전체학생총회는 학생인 권리와 학교의 미래를 핵심으로 행사장으로서 학교 민주주의를 저지하는 전쟁 충장인선제 개선을 촉구하고 전쟁한 우승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므로 5월 29일 늘른 5시, 늘봄인에서 진행되는 전체학생총회에 참석해 힘을 함께 보내주길 바란다.

전체학생총회는 숙명여대 학내 민주주의 시작점을 짚어내는 해 기념할 것이다.

숙명의 역사의 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다.

행정학과 늘봄인을 학생회 일정



행정학과는 각 학생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새창입니다.  
전체학생총회에 함께 가실 분들에게는 학교 오른쪽방향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혜윰'

행정학과의 유일한 학회인 '혜윰'은 '생각'의 순우리말입니다. 행정 학우들이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사고의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 1학기에는 탄력 근로제, 무인화, 노키즈존, 사형제 등의 이슈를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의 무인화를 보여주는  
무인 종합정보안내 시스템,  
키오스크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 학회 대항전



5월에는 '혜윰'의 스터디팀이 모여 그동안 공부했던

주제들을 가지고 **학회대항전**을 진행합니다.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주제에 맞게 뉴스, 토크쇼, 오디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여 여러 사회적 이슈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습니다.

**혜윰과 함께 새학기를 보람차게 보내봐요!**

눈송이의 숙대 정복기  
행정학과 학생회 부서&학회 편  
★ 정복 완료!

